

향봉 스님의
## 一切唯心造

### 사자암 이야기

사자암 대중을 소개 해야겠다. 먼저 사자암의 부지런한 머슴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동트기 전에 법당과 종각, 삼성각, 주지실의 마당을 깨끗하게 빗자루로 청소한다. 잡초도 뽑고 모노레일의 레일 주변의 웃자란 대나무, 칡넝쿨, 풀도 낫으로 깎는다.

장마철에는 등산로의 물길도 고치고 도랑의 곳곳을 살펴 손질 하는걸 즐긴다. 진돗개와 고양이의 먹이 챙겨주기, 물그릇 씻어 물 바꿔주기도 그의 몫이다.

거기에 비하면 공양주의 할 일은 한가로운 편인데 끼니때마다 뜨신 밥으로 상 차리는 것, 가끔씩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봉지커피로 대접하기, 과일은 각자가 알아서 셀프로 깎아 먹기 등이 그의 할 일이다. 양말, 수건, 내의 등도 하루에 한차례씩 세탁하는데 세탁은 보조 공양주인 드럼세탁기 담당이다.

사자암 주지는 성질이 지랄이다. 성격이 급하여 불칼이다. 똥고집에 자기주장이 강하여 '일통'이다. 일통을 친절히 설명하자면 '일방통행'의 준말이다.

사근사근하고 부들부들하면 신도들이 오죽 좋아하랴! 그러나 사자암 주지는 직설적이다. 목소리도 크다.

사자암의 새벽예불은 두시로 정해져있다. 새벽잠 없는 늙은이가 새벽명상을 즐기며 시력도 좋아 바늘귀에 실을 꿰어 새벽 바느질을 좋아한다. 염불대신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데 음정 박자가 자유롭다.

혼자서도 잘 울고 혼자서도 잘 웃는다. 법당에는 주지 방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가 누구이든 맞절로 맞이한다. 생일은 잊은지 오래 이고 신도들과 어울려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긴 하나 지역 기관장들에겐 이유있는 회초리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市長)을 사자암으로 불러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사찰의 당면과제를 거뜬하게 해결한다. 사자암에서는 권선문 따위를 키우지 않는다. 오줌 누는 일과 물 마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며 자기불공, 기도는 본인이 목탁 치며 절하며 해결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신앙은 자유와 행복 누림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진리의 등불, 마음의 등불로서 스승삼아 머묾과 소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해탈(解脫)이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며 기본에 충실해야할 보편타당한 일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 되어 주술적, 신비로운 존재로 거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신앙은 열려 있어야 하고 진리는 드러나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주지 소개 부분이 옆길로 길게 나가 눈살 찌푸리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사자암의 머슴과 공양주, 주지가 셋이 아닌 한 사람이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한사람을 나누면 셋이요 모으면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자암 주지는 자격증은 없으나 요리솜씨는 제법이다. 미역국에 치즈 두 장쯤 넣어 끓이면 곰탕 미역국이 된다. 맛도 좋다. 부침개 만들 때는 밥을 서너 숟갈 넣어 부치면 맛이 쫄깃하고 식감이 좋다.

### 목탁쳐도 귀신이 올 리가 만무
### 생각 바뀌고 마음 열리길 바랄 뿐

남은 밥으로 누룽지 만들 때는 치즈 조각을 곁들이면 누룽지가 한결 구수하고 맛이 좋다. 전기밥솥에 찰밥을 지을 경우에는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린 후 주걱으로 밥을 뒤집고 보온버튼을 누르면 맛있는 찰밥이 된다.

라면을 끓일 경우 후레이크와 분말스프를 넣지 않고 끓여보자. 충분히 익힌 면을 국물 없이 건져내 그릇에 담아보자. 오이채와 김치를 잘게 썰어 고추장하고 비비면 맛좋고 개운한 비빔면이 될 것이다.

사자암 주지는 생긴 대로 행복하다. 누가 있든 없는 말도 행동도 꾸미지 않고 걸림과 머묾 없이 자유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목탁 쳐서 귀신이 올 리 없다며 진솔한 신앙상담을 즐긴다.

사자암 주지가 법당에서 법문할 때는 누구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경청한다. 두 다리 길게 뻗고 법문 듣는 청중들이 늘고 있다. 사자암 주지는 법문 후 끝장토론을 즐긴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어 진리와 하나이루길 온 몸으로 설법하고 있다.

# 조사선의 우월함을 외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구산선문의 개산조 가운데 범일(梵日: 810~889) 국사는 사굴산문을 열어 그의 독특한 선관(禪觀)을 내세웠다. 그는 특히 진정한 깨달음은 조사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 뒤 진귀조사(眞歸祖師)를 만나 깨달은 것이 진실한 깨달음으로 이것이 바로 조사선의 경지이다"라고 말했다.

진귀조사설은 선의 원류를 석가모니에게 두지 않고 진귀조사에게 두고 석가모니가 진귀조사에게 선법을 전해 받았다고 보는 설이다. 이는 조사선의 우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조사선의 종지를 당시의 우리나라에 새롭게 천명하고자 한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진귀조사설은 〈선문보장록〉에 나오는 이야기로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도 히말라야에 있는 진귀조사를 찾아가 선을 전수받았다는 것으로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선종의 우월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사선이란 말 자체도 〈조당집〉에서 쓰기 시작한 말로 여타의 경론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또 진귀조사설를 내세우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다.

어려서부터 비범한 용모를 지녔던 범일은 부처님의 상호 가운데 하나인 정상육계상이 있었다 한다. 15세에 출가할 뜻을 자지고 절에 와 20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흥덕왕 6년(831년) 입당 유학의 원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마침 왕자 김의종(金義琮)이 배를 타고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적에 그 배를 타고 함께 당나라로 들어갔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지식을 참방하던 중 염관제안(鹽官濟安)을 친견하였다. 염관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동국 신라에서 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왔는가? 육지로 걸어왔는가?" "바다도 건너지 않고 또한 육지도 밟지 않고 왔습니다." "두 길을 다 밟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해와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발로 밟지 않으나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답을 하고나서 염관이 범일을 동방의 보살이라고 칭찬하였다. 범일이 또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루어 부처될 수가 있습니까?" "도란 닦을 것이 없는 것이니 다만 자성(自性)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부처라는 견해나 보살이라는 견해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평상심이 곧 도이다."

이 말에 범일은 다시 크게 깨우치고 염관의 문하에서 6년을 정진하였다. 그 후 또 다시 제방을 순력하다 약산유엄(藥山惟儼) 선사를 찾아갔다. 유엄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강서의 마조 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왔는가?" "스님을 친견하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스님께서 다시 일보를 전진하시면 되지만 저는 화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약산도 범일을 칭찬하였다.

마침 무종(武宗)이 파불(破佛)을 저지른 회창사태(會昌沙汰:884년)가 일어나 한동안 피신을 하면서 산속에 숨어 선정을 닦았다. 그후 소주(韶州)로 가서 육조 혜능의 탑을 참배했는데 학이 와서 울고 하늘에 오색의 서운(瑞雲)이 나타났다고 한다.

문성왕 9년(847년)에 신라로 귀국하였다. 명주(溟洲) 도독(都督)의 청에 의해 굴산사로 가 40년을 조사선법을 진작하였다.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의 세 왕으로부터 존숭을 받았고 887년에는 진성여왕이 어례(御禮)를 갖추어 국사로 모시려 했으나 끝내 국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범일의 법을 이은 대표적인 제자에는 개청(開淸), 행적(行寂) 등 10대 제자가 있었다. 이리하여 사굴산파가 흥성하여 보조 국사 지눌에까지 이어진다. 사굴산 지역의 풍습 가운데 대관령국사서낭신의 제사를 해마다 단오날 모시어 왔는데 범일 국사를 서낭신으로 신격화 하여 모시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 이는 신라왕족 가운데 강릉김씨 시조가 된 김주원의 자손들이 같은 강릉김씨인 범일을 정신적 지주로 받들다가 점차 민간에 그 영향이 커져 서낭신으로 숭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사무량심서 중생과 보살이 나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⑧ 사무량심이란?

**菩薩於一切眾生等生悲心。然於惡行眾生倍生怜愍。譬如大富長者唯有一子愛念之心徹於骨髓。菩薩愛念一切衆生亦復如是。如有惡子不欲父得勝己事者是名背恩。一切怨憎眾生於菩薩所同一味惡。菩薩於怨憎人生同一味悲心。世間眾生得報恩者生其歡喜。若菩薩於怨憎人所與其利樂。心生歡喜倍過於是。世間眾生若罵時他不還報便大歡喜。菩薩得他罵時心大歡喜。有愛心者於三界中悉皆普遍。菩薩悲心亦普遍三界。菩薩悲地獄眾生不如悲愛著三界愚癡眾生。眾生樂於己樂為無量大苦之所繫縛。菩薩為利他樂故為無量大苦之所繫縛。一切眾生皆同一事。皆欲離苦得樂。與他利樂為勝有為。利向己者亦是悲因亦是喜因。為利向他者見之生於悲喜。自為己利所以生悲。見其得樂所以歡喜。四無量心者內心欲修緣。四攝法者為眾生利樂名為最勝。修四無量者能與世法及出世法。因世法出世法及四無量心都是同一境界。何以故。同一利益眾生。同得一無上菩提果故。悲者能利他。智者能捨。不生希有心。不生高下心。**

번역 |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자비심을 내며 악행 중생은 배나 불쌍히 여기는데, 비유하자면 큰 부자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듯 보살이 일체 중생 사랑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데 나쁜 자식이 있어 아버지의 사업을 잇지 않을 것 같으면 은혜를 저버렸다 합니다. 일체의 원망과 미움은 중생이나 보살에게나 동일한 맛의 악이지만 보살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맛의 자비심을 냅니다. 세상의 중생은 보은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만약 보살이라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며 마음에 즐거움을 내되 배나 더하며 세상의 중생이 만약 욕을 해도 되갚지 않고 크게 기뻐합니다. 보살은 남이 욕해도 마음에 크게 기뻐하나니 애착심이 삼계에 어디든지 보편적인데 보살의 자비심도 역시 삼계에 두루합니다. 보살의 자비는 지옥 중생의 슬픈 애착과 삼계의 어리석은 중생과 같지 않나니, 중생의 즐거움은 자신만의 즐거움으로 무량한 큰 고통에 얽매이고 보살은 이타심의 즐거움으로 무량한 고통에 얽매입니다. 일체 중생들이 한결같이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바라지만 이타심의 즐거움이라야 수승하다 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익이 또한 슬픔의 원인도 기쁨의 원인도 되는데, 타인을 향한 이익은 자비의 기쁨이 생기며 자기만의 이익은 슬픔이 생기는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이란 내심 수행하려는 인연이며, 사섭법(四攝法)이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이니 가장 수승합니다. 사무량심을 닦는 이는 세간법으로 출세간법에 이르나니 세간법으로 출세간법과 사무량심에 이르는 원인이 모두 동일한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중생을 이익케 하며, 같이 위없는 보리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이타심이요, 지혜란 능히 버리는 것이니 특별하다는 마음도 내지 말고 높고 낮은 마음도 내지 마소서.

**해설** | 사무량심(四無量心)이란 사범주(四梵主)라고도 하는데, 네 가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이타심을 이르는 말이다. 네 가지 이타심이란 자비희사(慈悲喜捨)에서 자(慈)는 사랑하는 마음이자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비(悲)란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며, 희(喜)는 남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이며, 사(捨)란 자신의 애착을 버리면서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다. 출가자나 속세의 이들이나 세속법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출가자는 세속법에서 출세간법에 이르고, 거기서 사무량심을 내는 이들이다. 출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의 인연을 짓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 보살과 중생이 갈린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련, 관욕(기초부터 시작)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출재가 불자의 필독서
만해 한용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강의

백년 전 주창하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개혁정신, 지금 바로 필요한 시기!!!
삼국시대 이래 1700년을 이어온 불교가 불자의 감소로 제1의 위치를 상실하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는 요즘, 한국불교가 개혁 없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군소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백 년 전에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저술입니다.
한국 근대불교를 깊이 연구한 혜룡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함께 고민해봅시다.

혜룡스님 약력
· 해인사 지족암 故 일타 큰스님 제자로 출가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수료 (한국 근대불교 개혁운동 연구)
·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에서 강사,학감,교무국장 등 역임
· 現 부산 센텀일심사 주지

| | |
|---|---|
| 교육대상자 |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불자 (출가자, 재가자 누구나 가능) |
| 개 강 일 | 9월 6일 |
| 교 육 기 간 | 8주 (2개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강의 시작 |
| 수 강 료 | 10만원 (교재비 포함) |
| 수강료 입금 안내 | 부산은행 101-2049-8065-05 센텀일심사 이경미 ,9월 3일 이내 입금 요망 |
| 접 수 문 의 | 센텀일심사 051)781-054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

반야참회(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강의 안내
반야참회는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으로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8월 29일부터 3개월간)
■ 수강료 : 5만원 (교재비 별도)

대한불교조계종 센텀 일심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전화 051)781-054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anyadMeeting